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II 실시와 평가

- EU는 주변부 국가의 재정적자로 서유럽권 은행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기로 함.
 - 최근 포르투갈의 국가 자본조달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구제금융 신청이 예상되는 한편 이러한 위기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3월 또는 늦어도 4월에는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6월에 공개하기로 함.
- 그러나 금년의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는 작년에 비해 투명성과 엄격성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작년에 시행된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는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Tier1 자본을 각국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함으로써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됨.
 - Tier1 자본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허용함에 따라 일부 국가는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하였고 국가별 비교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
 - 미국은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이후 은행들의 추가 구제금융 신청이 없었으나 유로지역은 스트레스테스트에 통과한 아일랜드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짐.
 - 금년의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역시 Tier1 자본에 대해 일률적인 정의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시나리오가 다소 약화됨으로써 파급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통과', '실패에 근접', '실패'로 구분하고 '실패에 근접'하거나 '실패'한 은행은 자본보강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자본조달비용 시나리오를 1.25%p 상향 조정한 것은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주식시장 하락 시나리오가 작년의 -20%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유로지역의 GDP 악화시나리오도 -0.6%에서 -0.5%수준으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은 엄격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Financial Times 3/8, 3/7)